

무소의 뽀처럼...

장 ○ ○

- (수원)조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재학
- 2014년 5급 일반행정직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14년 5급 공채 일반행정에 합격한 ○○○라고 합니다. 과거에 공부를 할 때 먼저 합격한 선배님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며 많은 도움을 받고 동기 부여가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 또한 고시계 관계자분들의 귀중한 제안으로 공직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기쁩니다. 물론 직접 만나서 조언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고시계 지면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수험 기간을 단축하고 합격의 길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지는 기회가 된다면 이 합격수기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고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충분히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수기는 다른 수기들과 비슷하게 어떻게 공부하였는지와 관련하여 2차와 1차에 관한 내용을 적고 그 다음으로는 약 3년 반의 수험기간동안의 생활 등을 적어내려가는 방향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공부방법

1. 2차 시험

(1) 행정법

저는 5과목 중 행정법에 대해 가장 자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는 약 67점으로 고득점 한 바 있고, 2014년에도 50점 초반을 받아 합격생 중에서도 나쁘지 않은 점수였습니다. 제 생각에 행정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논점을 빠짐없이 잡아야 하고, 두 번째로 포섭을 풍부하게(주어진 사례의 구체적 내용을 포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2013년 같은 경우에 제가 고득점 한 배경에는 경찰문제에서 경찰 책임의 문제를 자세하게 검토한 것과 3문의 (3) 부관 문제에서 법률효과 일부배제에 대해 다룬 것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찰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동등한 행정청간 경찰권 행사에 대한 논점은 물론 썼고, 경찰책임과 관련하여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의 의미 및 인과관계의 문제와 이때 누가 행위책임, 상태책임을 지는지, 나아가 경찰책임 경합시 누가 책임을 지는지 등의 논의를 다 써주었습니다. 물론 분량의 압박이 있긴 했지만 논점들을 세세하게 검토해준 것이 고득점에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비례원칙을 검토 안한 것이 감점요인이었던 것 같네요) 더불어 법률효과 일부배제도 다른 학생들은 그냥 넘어간 경우가 있는데 저는 10점 중 5점을 할애하여 사후부관과 같이 검토해주면서 점수를 더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포섭의 문제는 2014년 행정법 고득점을 한 학생들의 공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문의 보조금 문제에서 법인과 같은 키워드를 활용하면서 영리성 등을 언급한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행정법은 분량을 다 채운 학생들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교수님들이 행정법 분량을 다 못 채운 답안에 대해서는 점수를 덜 준다는 것 같습니다. 분량을 다 채워야 필요한 논리가 다 제시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행정법은 김정일 선생님 예비, 1, 2, 3순환을 듣고 류준세 선생님 3순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류준세 선생님의 각종 특강을 들으면서 정규강의를 듣지 않았던 2, 3년차 때 최신판례 및 각론 등을 보충했습니다. 교과서 활용은 예비순환들을 때 김정일 선생님이 치라고 한 밑줄 위주로 읽고 그 이후에는 교과서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홍정선 교수님의 책을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과서가 좋긴 하지만 교과서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였습니다. 3순환 행정법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 때 박균성 교수님 교과서를 읽어보았는데 제가 알지 못한 논의나 판례들을 표시해놓고 따로 단권화된 책에 옮겨적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면 행정법 공부하다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교과서에 해당 파트를 찾아보며 이해하는데 교과서를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교과서는 보조적 교재로서 활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제 행정법 실력이 급상승한 배경에는 논점잡기 연습과 기출문제 풀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작업을 하였는데, 논점잡기는 기출문제나 김정일 선생님 정선사례집을 가지고 50점짜리 문제당 7~8분 정도 목차를 간단히 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5~6문제만 잡아도 2주정도면 80문제 이상을 접할 수 있기에 사례 연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행정법도 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은 최소 2번정도는 답안을 작성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2번 정도 답안 작성하고 2번 정도 논점 잡기 연습을 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기출은 행시, 입시, 법원행시, 사시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변호사시험도 풀어봐도 좋구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아는 형과 하루에 20분정도 류준세 선생님 캡슐을 가지고 판례암기 스터디를 했는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판례는 꾸준히 조금씩 외우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 같으니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지는 마시고 째는 시간동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경제학

경제학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애를 먹었던 과목이었습니다. 경제학적 센스를 가진 학생이라면 오히려 경제학이 전략과목이 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센스가 부족했기에 경제학이 조금은 두려운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제학 기출문제를 보면 최근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2015년 문제는 이야기를 듣기로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부분은 남들도 다 풀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기에 너무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공부를 한다면 경제학 공부에만 매달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고 유형들을 익숙하게 한다면 정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의 것이 논리적 설명이나 적절한 그래프의 제시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점 포인트로서 합의 제시에 대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해당 문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합의(가령 후생경제학 1,2정리나 코우즈의 이론 및 죄수의 딜레마 등)가 있다면 응당 제시하시면 되지만 굳이 도출하기 어려운 합의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합의 때문에 점수가 많이 갈리는 것은 아니니 평소에 여러 가지 경제학적 합의들을 알아두는 것은 좋지만 실전에서 억지로 합의를 도출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학은 김진욱 선생님의 강의만 들었습니다. 물론 황중후 선생님의 강의도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재경직이 아닌 이상 경제학을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더 정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김진욱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내용에 대한 이해는 본인이 강의와 교과서를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욱 선생님의 강의로도 충분하다고 보았고, 실제로도 선생님의 강의만을 듣고도 경제학 내용의 상당 부분을 잘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 때 경제학을 잘하는 재경직 수험생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좋겠죠.(이러한 이유로 스터디에 재경직 수험생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제학적 센스가 있으면서도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제 경제학이나 재정학 등의 파트에 대해서는 김진욱 선생님의 특강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충분한 걸 넘어서 국제 경제학은 무역론에서 스톨퍼-사뮤엘슨 등 이러한 내용까지 알아야 하나 싶은 정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십니다.) 일단은 특강의 내용을 잘 알아두되 3순환 때 시간이 없다면 특강 내용 중 정말 나올만한 이론이나 내용만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령 국제 무역론에서는 헥셔-올린의 그것이겠죠.) 더불어 경제학 용어들도 답안에 정의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미시와 거시에 있는 경제학적 용어들을 미시 zip, 거시 zip에 나와 있는 정의들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 합해서 250개 정도 되었는데 시간날때마다 계속 보다보니 2~3년차때는 거의 기계처럼 정의를 답안에 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경제학은 기출문제 분석도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저는 기출문제 답안 작성은 3번 정도 했던 것 같고(행시 및 외시 15년치, 입시 일부 문제), 답안 작성이 아니라라도 답만 도출하는 연습을 한 것도 10번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3년 이상 공부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기출을 본 것이지만 기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실제로 실업이나 고용과 관련된 문

제는 유사하게 여러번 기출된 바 있죠.) 마지막으로 경제학 기출문제와 더불어 강사님들 N제(가령 황종휴 선생님 연습책)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이고, 고시촌에서 관련된 스터디도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N제는 여러번 풀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수험기간에 1번이나 많아봐야 2번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은근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에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행정학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 사례의 활용이 고득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우선 묻는 바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가령 2013년 일반행정 행정학 3문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적자의 원인을 행정통제 관점에서 쓰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저는 단순히 주인-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유인이 일치하지 않아서라는 말을 주저리주저리 쓰면서 점수가 깎였는데(점수가 깎이게 확실치는 않지만 고득점자들과 비교해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득점한 사람들은 행정통제의 의미와 그 유형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왜 행정통제가 제대로 안되는지를 썼다고 합니다.(가령 주민 차원, 중앙정부 차원, 지방의회 차원의 행정통제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같은 내용을 서술하더라도 행정이론을 조금 더 써주고 사례도 더 써준 답안이 더 고득점을 한 것 같습니다. 가령 2014년 행정학 1문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공공성 확보 실패에 대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수자원공사의 적자(즉 정치 논리에 따른 적자 발생), 한국 전력의 전력 차단에 따른 한 남매의 화재사고(수익자부담원칙을 증시하면서 약자들이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사례) 등 사례들을 각 목차마다 최소 하나씩은 써주었습니다. 더불어 이론 활용과 관련해서는 2013년 재경 행정학 1문에서도 주인-대리인 이론이나 거래비용이론 등 다양한 이론을 언급해주는 것도 좋은 답안이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론과 사례를 풍부하게 언급해주는게 고득점의 길이라 생각됩니다.

행정학 공부방법과 관련해서는 수험생활 초반부에는 박경효선생님 예비부터 3순환까지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하였고, 답안 작성이나 사례 등에 있어서는 송윤현 선생님 강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송윤현 선생님의 문제들이 최근 기출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에 2년 차부터는 주로 송윤현 선생님의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송윤현 선생님의 답안지 특강도 선생님의 직접 첨삭을 받고 답안 연습도 할 수 있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 사례와 관련해서는 강의나 최고답안에 나와있는 사례를 참고하는 한편, 스터디의 다른 학생들의 사례도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파트의 사례가 부족하면 그와 관련된 사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곤 했습니다. 가령 행정부패에 대한 사례가 필요하다면 네이버에서 '행정부패 사례'와 같은 키워드로 찾아보았습니다. 행정학 단권화의 경우 제 생각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송윤현 선생님 2013년 3순환 강의자료집에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괜찮은 모의고사 및 그 해설과 최고답안을 잘라서 끼워넣고, 자잘한 사례나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관련 파트에 적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권화하거나 서브를 만들면 막판에 공부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4) 정치학

정치학의 경우에는 고득점 포인트가 딱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묻는 바에 대한 대답을 풍부하게 하면서 현실사례도 풍부하게 제시한 답안이 상대적으로 고득점한 것 같습니다. 가령 2014년 정치학의 경우 다문화주의 등에 대해 프랑스, 호주, 영국, 한국 등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풍부하게 언급해준 답안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2년 정치학 2문의 연구방법론이나 2014년 행태주의 문제도 관련된 연구 사례를 써주거나 특정 학자의 연구 방법들을 예를 들어 써주었다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국적 함의에 대해서도 직접 묻지 않더라도 간단하게나마 써주면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치학의 논의들이 단순히 학문상의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것이기에 어떠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에서 이 논의들이 나오는지 써주면 좋겠죠. 물론 물음에 대한 답이 가장 중요하기에 한국적 함의는 3점 정도 분량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치학 공부방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김희철 선생님 강의로 정치학 내용들을 정리하고 신희섭 선생님 자료 및 답안지 특강을 통해 추가적인 공부를 하는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김희철 선생님의 펀더멘탈 정치학이 비교정부와 정치라는 책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정치학 내용을 잘 정리해놓았기 때문에 알고 넓은 공부가 필요한 수험 정치학 대비에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학을 깊이있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고 워낙 내용이 광범위하여 방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학 사례도 정리해놓으면 좋은데, 행정학과 마찬가지로 강의나 최고답안에 나와있는 사례 혹은 스터디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 속 사례를 정리하시고 본인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령 2015년 다수제민주주의 및 합의제 민주주의도 이론적 내용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경우나 합의제민주주의를 채택한 북구 유럽의 사례를 써주었다면 더 고득점을 하겠죠. 이외에도 단행본은 <국제정세의 이해>(국제 정치 관련해서 꼭 읽어봐야할 책이라 생각합니다.)와 정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보게 해주는 최장집 교수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및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20세기로부터의 유산>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선택과목 : 정보체계론

정보체계론 같은 경우에는 양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사실상 암기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강의의 경우에도 정경호 선생님 3순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내용들을 A4용지에 개별 주제별로 정리를 하여서 그 정리본을 가지고 시험 전까지 달달달 외웠습니다. 답안은 3순환 때 보는 모의고사만 쓰면 충분하고, 최고답안 중에 중요주제에 대해 잘 써놓은 답안이 있다면 그것을 외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보체계론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인터넷을 통해 관련된 통계나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이슈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전자정부나 최신기술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2. 제1차 시험

(1) 언어논리

개인적으로는 가장 자신있는 과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속독이 익숙한 편인데 지문에서 필요한 내용 위주로 보고, 그에 따라 문제를 풀다보니 푸는 속도도 빨랐던 것 같습니다. 대개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문제들은 무조건 푼다는 생각으로 임했고, 논리문제도 유형을 봐서 어려워보이는 것은 계끼되 시간이 남는다면 푼다는 전략을 썼습니다.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문제들은 보기와 제시문을 잘 비교하면 5급공채 피셋 수준에서는 명확하게 답이 도출될 수 있고 따라서 정답률이 높기에 이 파트가 약하신 분들은 좀 더 빨리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리와 관련해서는 저는 따로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논리 공식 같은 것을 외워두고 관련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기에 김우진 선생님 등 논리 전문 강사님의 수업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료해석

자료해석은 어렵지도 쉽지도 않은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해석도 강의를 특별히 듣지 않았고, 다만 자료해석 강사님들이 알려주신 몇 가지 요령들은 익혀두었다가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자료해석은 열심히 하면 오르는 과목이라 생각하기에 자료해석 점수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고 강사님들이 알려주는 요령도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해석의 경우에는 신현 선생님과 석치수 선생님 두 분의 문제를 주로 풀었는데, 두 분의 문제 스타일은 조금은 달라서 보완재 형태로 둘다 풀어보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3) 상황판단

상황판단의 경우는 저에게 쉽지 않은 과목이었습니다. 다만 열심히해도 점수를 크게 올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여서 투입을 최소화하였고 문제를 풀 때도 마음을 편하게 먹었기에 스트레스는 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상황판단 문제 유형중 제가 강한 유형과 약한 유형을 나누어서 문제를 풀 때 제가 강한 유형을 우선 풀고 약한 유형은 나중에 풀거나 아예 풀지 않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70~75점 사이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므로 이 수기를 읽어보는 분들도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조문 유형이나 역사 문제 등을 좋아했는데, 법조문 유형의 경우 이진우 선생님의 강의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법조문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Ⅲ. 수험기간 중 생활

1. 공부시간

공부시간은 1년차의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7~8시간 정도 투입했던 것 같습니다.(아침 8시에 시작하여 밤 11시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학교 수업을 듣구요.) 2년차의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휴학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평소에는 9~10시간 정도 공부를 한 반면 3순환 기간에는 아침 7시 반부터 밤 12시 반까지 공부하는 초인적 힘을 발휘했습니다.(물론 중간중간에 너무 피곤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3년차 이후에는 어느정도 공부가 되었다는 생각에 8~9시간 정도 꾸준히 공부를 하되, 공부가 정 안되거나 피곤한 날에는 4~5시간만 공부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간혹 슬럼프에 빠지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하루를 온전히 놀기보다는 오늘 꼭 해야 할 것을 정해놓고 3~4시간동안 한 다음에 휴식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실 때도 죄책감도 덜 들고 공부 리듬도 잘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스트레스 관리

저 같은 경우 스트레스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도하여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두번으로 횟수를 제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 토요일까지는 주중처럼 공부를 하고 일요일에는 부족한 공부를 조금 보완하거나 온전히 쉬곤 했습니다. 평소에 일찍 일어나기에 일요일은 늦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고, 오후에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다시 집에 와서 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녁에 설 때는 드라마나 예능을 보거나 가족들과 외식을 하곤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공부 끝나고 먹는 야식도 저에게 스트레스를 푸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살이 찌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야식이라도 먹어야 그 하루 스트레스가 풀렸기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9동의 비겁담이나 포근의 와플 및 죠스 떡볶이 등 여러 야식거리들이 있으니 본인 취향에 맞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수면관리

수면과 관련해서는 대개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잠을 잤기에, 약 8시간정도를 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3순환 기간에는 6~7시간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수면시간을 확보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특히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정말 졸릴때 그럴 때는 1~2년차에는 세수도 하고 잠을 깨려 노력했지만 3년차부터는 그냥 독서실 자리에서 잤습니다. 그냥 졸릴 때 자는게 오히려 공부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3년차의 체력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1~2년차때부터 낮잠을 즐겨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IV. 나가며

저의 공부방법이나 수험생활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공부방법을 온전히 따라하시기도 본인의 공부방법 등에 있어 개선할 여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공부방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급 공채 시험공부를 하다보면 막막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포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으시겠지만, 열심히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다보면 언젠가는 붙는 시험이 5급 공채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우직하게 나아가되 주위 사람들과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면 이 합격수기를 읽고계신 여러분들께도 합격의 영광이 다가올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소 부족한 합격수기라도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얻으셔서 공직에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